"추경 초당적 국회 협조 요청"

윤석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
북 코로나의약품 지원 거듭 강조
바이든과 IPEF 공급망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6일 만에 진행한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당국의 호응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의약품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방침을 밝히면서 "2년간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라면서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다"면서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추경으로)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 없이는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여소야대 정국에서 전략적으로 '낮은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경제안보 플랫폼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가능성도 이날 처음 직접 언급했다. IPEF 참여는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공조한다는 외교적 함의를 갖는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서 구사할 전략과 맞물려 주목된다.

오는 21일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추경안 시정연설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총리후보자 인준 협조해 달라"

윤대통령, 여야 지도부 환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여야 지도부와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 전 사전환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꼭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한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본인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협치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미리부터 이분이 총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고 했다"며 "낮은 자세로 국회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환담에 참석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특별히 응답하지 않았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이날 사전환담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정진석·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사전환담에서 자신이 한 발언 내용에 대해 "3당 대표 회동을 격의 없이 하자는 윤 대통령 측 제안이 있었음에도 그 회동이 여러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협치에서 여러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쪽에선 인사 문제와 결부해 (대통령 회동 등)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며 "저는 그것은 상당히 안타깝고, 회동이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6·1 지방선거 라운지

주기환 "여성·청년이 살기좋은 광주 만들것"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는 16일 "여성과 청년이 살기좋은 광주를 만들겠다"고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주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직장과 가사, 자녀 양육 등으로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던 55세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기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방식의 행복주택 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성들과 청년들을 위한 ▲출산·갱년기 우울증 치료비 지원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설립 ▲영아 보육·의료비 월 100만원 지원 ▲권역별 아이돌봄센터24 운영 ▲청년 결혼자금 3000만원 무이자 대출 지원 ▲청년 중심도시 '청년시티' 조성 ▲청년민회 구성 및 운영 ▲군복무 상해보험금 지원 등을 약속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장석웅 '기초·기본학력 완전책임제' 등 10대 공약 발표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후보가 16일 '기초·기본학력 완전책임제'를 비롯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장 후보는 10대 공약을 통해 전남교육을 혁신하고, 아이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미래교육의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10대 핵심 공약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축소 ▲학생교육활동비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학생 맞춤 교육지원 인공지능(AI) 스마트교실 구축 ▲출근부터 퇴근까지 아이들 안심 무상돌봄 실현 ▲공·사립유치원 완전 무상교육 실현 ▲폐교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지역에 활력을 주는 교육 등이다.

장 후보는 "전남교육은 지난 4년의 성과로 변방에서 미래의 대안을 창출하는 전국적 교육 모델로 우뚝 섰다"며 "앞으로 4년 동안 10대 공약을 통해 전남교육을 혁신의 바다로 이끌고, 전남 아이들의 당당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국힘, 광주 기초의원 후보들 "중앙과 호남 잇는 가교역할"

국민의힘 광주 기초의원 후보들은 1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호남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호남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호남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상황 속에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민의힘이 여당이 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광주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광주 지역에도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 및 지방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광주에 광역단체장 1명·기초단체장 4명·기초의원 4명의 후보를 냈다.

특히 정당 득표수로 의석이 배분되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각각 1명, 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정의당 "민주당과 정의당 경쟁하는 광주정치 필요"

정의당 광주시당은 1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정치 독점 구도'를 타파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의당 광주시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30년 독점 정치는 부정부패를 낳았고 무능함과 무기력을 키웠다"며 "역대급 민주당 무투표 당선은 변화가 차단된 독점 정치의 부끄러운 얼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경쟁하는 광주 정치가 필요하다"면서 "시장을 제대로 견제하는 광주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광주에서 장연주 광주시장 후보를 비롯, 기초의원 6명과 정당 득표로 의석이 배분되는 광역의원(광주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에 2명의 후보를 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진보당 "일당 독점 깨고 진보당을 광주 1야당으로"

진보당 광주시당은 16일 "민주당의 일당 독점을 깨고 진보당을 광주 제1야당으로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를 바꾸기 위해선 정치 세력과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며 "1당 독점 구조가 깨지고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견제 세력이 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이 시의회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광주 정치가 확 바뀔 수 있다"며 "진보당을 광주 제1야당으로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진보당은 광역단체장 1명과 광역의원 6명·기초의원 14명을 후보로 냈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80억, 호텔/ 무인텔 매매 교환

• 전남 화순군 도곡온천 내
• 대지 2980평, 건물 1270평, 계획관리
• 건물 3동, 객실 52개, 관광호텔 허가 有
• 요양(병)원, 콘도, 리조트, 연수원 등 업종 변경가
• 법인체 양도양수가, 수도권 토지와 교환 가

주인 직거래. 010-3605-5000

21억, 신안동 대지, 매매

• 광주 북구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176평, 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득 (지하1층 지상10층, 72호실)
• 근린상가 등 타업종 변경가
• 현, 주차장 영업 中

(주)오천경매. 010-3605-5000